내일신문

2015년 01월 06일 화요일 019면 정책 15.4 x 20.0 ㎝

2015년 관광산업 전망 '흐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중국 '반부패 척결'
국부 유출 방지 때문

올해 국내 관광산업 경기 전망은 '흐림'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5년 관광산업 경기, 관광지출 전망조사'에서 관광산업 매출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48%로 전체 경제 성장률 전망치 3.8% 보다 낮다고 밝혔다.

또 2014년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불황기'라고 느끼는 경우가 응답 관광사업체의 45%가 넘었다. 이 조사는 호텔, 여행사 등 관광사업체 305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말 실시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방한 중국인들의 수는 2014년에 이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나 이들이 올리는 매출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부패 정책을 통해 국부 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움직임 때문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 중국의 반부패 정책 여파가 상당 기간 마카오 카지노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카지노 이용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최근 중국 경찰은 자국민들의 해외 카지노 이용으로 인한 국부 유출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출국자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4년 말 국내 카지노 주가는 동반 하락했으며 이 영향은 2015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광객은 1400만명이며 이들에 의해 올린 관광수입은 약18조원에 이른다. 이 중 610만여명이 중국인이며 대만·홍콩·마카오·몽골 등 중화권 관광객은 약 741만6000명으로 전체의 52.2%를 점유했다.

이와 함께 방한 일본인들의 수는 지금까지 추세대로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엔화 약세와 함께 한일 외교 관계 악화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호텔은 객실 평균요금을 인하하는 등 매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2014년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불황기'라고 보는 사업체가 45.3%에 이르렀다. 특히 1~3급 호텔은 46.7%, 국내여행업은 67.9%로 2014년을 관광산업을 '불황'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사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세월호 사고로 인해 대학생 엠티, 중고등학생 수학여행, 단체여행 등이 취소돼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했음에도 중국인을 겨냥한 중저가여행상품, 중국정부의 부패단속, 엔화약세 등으로 인해 국내 관광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미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에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부패 척결 기조에 따라 국내 카지노업의 매출과 입장객 수 증가 추세가 줄고 있다"면서 "방한 중국인이 늘고는 있으나 제주도를 중심으로 중국인 투자자들이 운영하는 관광업체에서 소비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세계일보

2015년 01월 07일 수요일 014면 종합 23.2 x 14.6 ㎝

지자체들 "황금알 마이스산업 키워라"

〈전시·회의 등 비즈니스관광〉

새 성장동력 육성 팔걷고 나서

경북, 관광자원 기반 비전 수립
경주, 화백컨벤션센터 내달 개원
창원, 시설증축 등 15개 과제 추진
평창도 동계올림픽 계기 본격화

포항=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

전국 지자체들이 굴뚝 없는 고부가가치 황금산업이라 불리는 마이스(MICE)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마이스산업은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 등 비즈니스 관광을 통칭하는 산업을 뜻한다.

6일 경북도와 경주시에 따르면 도는 경북을 세계적인 마이스산업 중심지역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신라·가야문화와 함께 불교, 유교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기반으로 경북 마이스산업의 비전과 육성 계획을 수립했다. 도는 최근 경주보문단지 힐튼호텔에서 국제회의 및 마이스 산업 육성과 거점도시를 위한 '경상북도 마이스 허브 포럼'을 연 바 있다.

경북도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동부권에 신라문화 중심의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남부권에 경산 청년문화창의지구 중심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북부권은 안동유교컨벤션센터, 중부권은 구미코 중심의 마이스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경주시는 최근 국제회의도시 지정과 경주화백컨벤션센터(경주HICO) 준공을 계기로 마이스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경주화백컨벤션센터를 조만간 준공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보문관광단지에 위치한 경주화백컨벤션센터는 최첨단 전문회의 시설로 3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과 12개 중·소회의실을 갖췄다.

마이스산업 육성 위한 지자체의 주요 추진 업무

지자체(명)	주요 추진 업무
경북도	마이스 허브포럼 개최, 권역별 컨벤션센터 건립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경주HICO) 준공,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
창원시	창원컨벤션센터(세코) 증축,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추진
평창군	국제회의도시 지정, 국제회의시설 건립

자료:각 지자체 제공

경주시는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해 '경주컨벤션뷰로'를 설립하고 홍보와 마케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결과 세계물포럼을 비롯해 세계한상대회, YESDEX(영남치과의사국제학술대회), 마이크로타스 2015(미세종합분석시스템국제학술회의) 등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고부가가치 관광 산업인 마이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발전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창원시는 2020년 국내 마이스 산업 5대 도시를 목표로 15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창원시는 우선 가동률이 한계에 이른 창원컨벤션센터(세코) 증축에 나서 현재의 건물 옆에 별도의 컨벤션 전용 건물을 2017년까지 지을 예정이다.

또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이 몰려 있는 창원시 명서동·봉곡동 지역과 현재 마산만을 매립해 조성 중인 해양신도시 일대를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해주도록 경남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2018 동계올림픽 종합특구인 강원도 평창군도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계기로 마이스산업을 적극 육성키로 했다. 국제회의도시 지정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을 받게 되는 평창군은 2018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마이스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주경제 2015년 01월 07일 수요일 010면 금융
14.2 x 18.1 ㎝

글로벌 카드시장 올해도 유니온페이가 대세

중국 관광객 구매력 힘입어
비자·마스터 결제비중 압도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명동의 모습. 중국 관광객들은 한국 카드시장의 큰 손으로 떠올랐다. [남궁진웅 기자]

글로벌카드 브랜드 시장에서 유니온페이의 강세가 올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카드사들이 유니온페이와 제휴에 적극 나서는 한편 비자·마스터 등 기존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낮추기에 주력하고 있다.

카드업계가 유니온페이와 제휴에 나서는 가장 큰 이유는 '요우커'로 불리는 중국 관광객들의 구매력 때문이다. 신한카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카드 사용액 4조8290억원 가운데 중국인의 사용액은 2조5514억원으로 52.8%를 차지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이 571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이들은 자국 글로벌 브랜드인 유니온페이 카드의 결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관광업계는 올해를 요우커 1000만시대로 예고하고 있어 유니온페이의 결제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 국내 카드사 사업부 관계자는 "자체 분석 결과 유니온페이 결제 비중이 비자나 마스터를 절대적으로 압도하고 있다"며 "사용률이 높은 곳과 제휴를 맺어야 하는 만큼 비자나 마스터보다는 유니온페이와의 제휴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가 유니온페이에 눈독을 들이는 또다른 이유는 비자나 마스터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회비 등으로 지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상품이더라도 마스타 제휴카드의 연회비가 1만원이라면 유니온페이는 5000~60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여기에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비자나 마스터카드 로고가 박힌 국내외겸용 카드를 국내에서 사용한 경우에도 0.01~0.04%의 수수료를 지불해왔다. 때문에 국부유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같은 이유로 국내 카드사들은 비자나 마스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KB국민카드 'K-월드', BC카드 'BC글로벌' 등을 선보였다.

아울러 국내에서 인지도 향상을 노리는 유니온페이와 수수료를 아끼려는 카드사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토종 글로벌 브랜드에 유니온페이가 추가되고 있다. 지난해 9월 KB국민카드는 유니온페이와 제휴를 맺고 케이월드에 은련 브랜드를 추가했다. 삼성카드도 자사 주력상품인 숫자카드에 유니온페이 브랜드를 달았다.

송종호 기자 sunshine@

헤럴드경제
2015년 01월 06일 화요일
010면 사회 11.5 x 28.5 ㎝

해외여행 방심하다간 '봉변'

공항서 다른 사람 짐 운반
알고보니 마약 엄중처벌
동남아선 카잭킹 등 조심

최근 중국의 한 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짐을 날라주던 한국인 14명이 마약 밀수혐의로 무더기 구속된 사건을 계기로 겨울철 해외 휴양지로 나가는 여행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이 최근 6개월새 한국인 마약사범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는 등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자국법에 따라 엄격한 법 집행을 강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해외 여행을 다닐때 가장 주의 해야할 것은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고 짐을 운반해주지 않는 것이다. 최근 국제 마약 거래 조직들은 해외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에게 "중량이 초과 됐으니 짐을 좀 부탁한다"며 접근해 몰래 마약이 든 짐을 맡기는 경우가 많다.

운반 도중 적발되도 조직원 외의 사람들만 처벌될 뿐 자신들은 안전하고, 적발되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마약 밀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영화 '집으로 가는길'에서도 다룬 이 수법으로 실제 구속되거나 처벌받는 한국인들이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필리핀에서는 야간 비행후 도착한 곳에서 나타나 봉고차를 태워준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

장준오 IOM이민정책연구원 원장(전 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필리핀의 경우 야간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골프관광객을 노린 '카잭킹'이 많은 편이다"며 한국어를 쓰며 접근하는 사람들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경우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암파이역 쇼핑몰에 있는 한국은행 주변에는 '한국인 기러기 엄마들은 등록금 낼 때 암팡지역 은행에서 현금을 잔뜩 찾아 나오는 좋은 먹잇감이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다.

장 박사팀등이 지난 2013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지를 방문해 베트남 교민 715명, 말레이시아 교민 460명등 총 1175명을 대상으로 범죄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범죄피해를 당한 바 있다'고 답한 교민은 베트남 250명, 말레이시아 132명 등 총 382명이나 됐다. 범죄피해율은 32.5%로 교민 3명중 1명은 범죄를 경험했다고 답한 셈이다.

장 박사는 "말레이시아에서는 한국인들을 보고 '봉'이라 표현한다. 한국인들은 고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 주된 범죄 대상이 된다. 소매치기를 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퍽치기(뒤에서 때려 기절시킨 뒤 물건을 훔치는 것)'를 하는데 여자들 같은 경우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범죄피해 교육을 할때 강도를 만나면 순순히 돈을 주라고 조언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베트남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로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엄해 살인, 납치등 강력범죄는 많지 않지만 날치기 등 생계형 범죄는 하루 한 건 이상 일어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호치민 시에 있는 한국국적 은행 주변에서는 현금을 인출해 나오는 한국인들을 노린 날치기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또 연말까지 자신의 빚을 다 갚아야 새해 복을 받는다는 풍습 때문에 한해 빚을 몰아 갚느라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날치기에 나선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태국의 경우 도박과 내기 게임 등으로 유인하여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 태국관광청은 "관광객들이 몰리는 싸얌 스퀘어, 싸얌 파라곤등 대형 쇼핑센터나 방콕의 유명 관광지에 이같은 도박 사기꾼이 많다"며 "이들은 일반 관광객들과 같이 보이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마약류에 대한 외국의 처벌은 엄격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중국은 1㎏ 이상의 아편이나 50g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운수·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도 처벌이 강해 싱가포르의 경우 필로폰 250g 이상을 소지·밀매·밀수한 경우 사형에 처하게 돼 있으며 외국정부의 감형 요청도 잘 받아주지 않는다. 필리핀도 필로폰 50g이상을 소지·밀반입한 경우 최대 사형 및 50만~1000만페소(1180만원~2억36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머니투데이

2015년 01월 07일 수요일 019면 종합 20.7 x 14.8 ㎝

고교생이 만든 게스트하우스 지도… '따봉'

<따뜻한 봉사>

특별한 교내 봉사활동
28개분야로 나눠 진행
지역사회·진로와 연계
마을 소식지도 만들어

"봉사활동을 진로와 연결하면 어떨까." "졸업생들을 다시 지역사회의 일꾼으로 키울 순 없는 걸까."

누구나 생각했지만 쉽사리 행동으로 옮기기 힘든 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숭문고등학교 허병두 교사(54)는 학생들이 교내 봉사활동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안타까웠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이들이 직접 지역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진로탐색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던 것. 그래서 특별활동 부장으로 일하며 그가 만든 교내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바로 '따봉'(따뜻한 봉사)이다.

"정말 재미있는 봉사활동을 만들고 싶었어요. 현재 체계로는 아이들을 대신해주는 '헬리콥터맘'만 만들거나 형식적인 시간때우기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진로를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봉사를 통한 즐거운 적성찾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허병두 숭문고등학교 교사

그는 기획단계를 거쳐 2010년 따봉을 시작했다. 그의 말대로 따봉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분야를 체험할 수 있다. △과학·기술 △국제·지역사회 △독서·문예 △음악·미술 △의료·보건 △소셜네트워크 △환경·생태 등 봉사활동 범위를 7개 분야로 설정하고 허 교사와 뜻을 같이하는 기관들이 힘을 보탰다. 세계적 단체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세계시민교육', 한국언론재단과 함께하는 '신문읽기 진흥 캠페인' 등 지난해에는 총 28개 프로그램이 시행됐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2시간의 따봉이 끝난 후에는 학부모 지원단과 지도교사, 기관관리자들이 모여 그날의 품평회를 열고 더 나은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것도 기존 봉사활동과 다른 모습이다.

몇 해 전 실시한 홍대 앞 게스트하우스 지도 만들기는 성과 면에서도 '따봉'이었다. 아이들이 직접 게스트하우스 취재를 통해 정보를 담고 한국관광공사의 도움을 받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브로셔 1만2000부를 제작해 마포구에 기증했다. 현재도 이 지도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훌륭한 길라잡이가 되고 있다.

허 교사는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활동"이라며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는 물론 관광객에게도 도움을 준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자부심과 좋은 경험을 얻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19일에는 따봉을 통해 마을이야기 전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한 숭문고 졸업생 여성민씨를 주축으로 마을(염리동) 소식지 '소금나루' 창간호가 발행되기도 했다. 이 책에는 염리동의 크고 작은 소식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롯이 담겨있다.

새로운 교내 봉사활동의 모델을 제시하고 정보와 경험을 축적하는 것, 그리고 리더십과 진로탐색 강화 등 따봉이 가진 가능성은 아직도 무궁무진하다. 이제는 이러한 가능성에 주목한 다른 학교로도 서서히 전파되고 있다. 경문고등학교의 따봉은 이미 2년 전부터 실시돼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올해는 새로이 풍문여고가 따봉을 시작한다.

그는 "여기서(숭문고에서만) 멈추면 의미가 없다"며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확장돼야 우리나라 교육에 성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모두다인재 이진호 기자

내일신문
2015년 01월 06일 화요일
019면 정책 10.3 x 24.8 ㎝

문화관광축제 지정 사업 '부실운영' 논란 확산

68억 규모 심사에 3일 결과 사전노출 의혹도

68억원 규모의 문화관광축제 지정 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한 지방자치단체 시장은 심사 발표가 나오기 전 한 행사에서 '문화관광 대표 축제'로 선정됐다며 공표, 심사 결과 유출 의혹도 제기됐다.

올해로 20년째가 된 문화관광축제 지정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를 대상으로 등급을 매겨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체부는 지난달 30일 대표 축제 2개, 최우수 축제 9개, 우수 축제 10개, 유망 축제 23개 등 44개의 축제를 '2015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표 축제에는 5억, 최우수 축제에는 2억5000만원, 우수 축제에는 1억5000만원, 유망 축제에는 9000만원을 지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이다.

그런데 문체부 발표 4일 전인 26일 문경시장은 한 지역 행사에 참석, "문경찻사발축제가 문화관광 대표 축제로 선정됐다"며 자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발표 결과 문경찻사발축제는 대표 축제보다 한 단계 아래인 최우수 축제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다"면서 "그런 사실은(문체부에서 결과를 유출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발표날짜를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애초 지난달 24일로 예정됐지만 문체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이틀 뒤인 26일로 미뤘다가 다시 취소했고, 결국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심사위원 선정이 불공정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문체부는 5일 해명 자료를 통해 심사위원의 제척 사유가 발생, 공정한 선정을 위해 지난달 27일까지 심사위원을 재선정한 후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심사위원의 제척 사유는, 문경찻사발축제의 총감독인 A씨가 9명 심사위원 중 1명이었다는 것. 이를 두고 심사위원 문제로 재심까지 하게 만든 축제가 최우수 축제로 지정된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A씨가 문경찻사발축제의 총감독이라는 것을 미리 확인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며 24~26일 외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와 재심을 하게 됐다"면서 "재심에서는 심사위원을 모두 교체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명 자료에 납득하더라도 68억원 규모의 사업을 불과 3일만에 새로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심사했다는 점에서 '부실 운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검토가 모두 끝난 이후 심사만 했고 연말까지 발표를 해야 한다는 일정이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20년째 이어지고 있는 해당 사업의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돼 왔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 관광업계 종사자는 "심사위원 명단이 사전에 알려지고 지자체에서 벌이는 로비가 상당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다"면서 "재선정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말했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스포츠조선
2015년 01월 07일 수요일 017면 Leisure 27.3 x 42.2 ㎝



◇눈과 빛이 어우러진 설국 태백산 눈축제장에서 관광객들이 초대형 눈조각을 배경삼아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있다.

▶가족-연인-친구와 한 가볼만한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 속으로…

올 겨울 한파의 위세가 매섭다. 때론 이처럼 '겨울다운' 날씨가 반갑기도 하다. 지구 온난화의 역습으로 근래 뚜렷한 사계절의 묘미가 덜해진 탓이다. 겨울은 바깥은 차갑지만 탐스런 함박눈과 수정처럼 맑은 얼음이 있어 더 운치 있다. 이즈음을 가장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겨울축제다. 요즘 겨울 축제 현장을 찾으면 화려한 눈꽃이 빚어내는 설국의 아름다움에도 취할 수 있거니와 파이팅 넘치는 송어, 산천어 잡기에도 나설 수 있다. 한 겨울의 낭만을 제대로 맛 볼 수 있는 화천산천어축제, 태백산눈축제, 평창송어축제, 대관령눈꽃축제 등 대한민국 대표 겨울축제를 찾아 떠나본다.

김형우 여행전문 기자 hwkim@sportschosun.com

눈과 함께 쌓이는 추억…스트레스 훌훌

다양한 프로그램 '맞춤형 얼음낚시터'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2015 화천산천어축제'

2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에 선정된 '얼음나라 화천 산천어 축제'가 10일(토)부터 2월 1일(일)까지 23일간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일원에서 열린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유수의 동계축제로 부상한 화천 산천어축제는 풍성한 콘텐츠가 자랑이다. '2015 화천산천어축제'에서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거워하는 얼음낚시, 짜릿한 산천어 맨손잡기에 하늘가르기, 얼음축구, 얼음썰매 등 60여 가지의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화천 복불복', '황금반지를 낚아라', '얼음나라 방송국 참여 이벤트' 등 푸짐한 경품을 내건 3개의 빅이벤트는 축제 분위기를 후끈 달궈줄 야심찬 콘텐츠가 된다.

올해 산천어축제의 '얼음낚시터'는 관광객의 성향에 따른 '맞춤 얼음낚시터'로 재탄생 됐다. 우선 사전 온라인 예약으로 원하는 시간에 입장할 수 있는 '예약접수 얼음낚시터'와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하는 '현장접수 얼음낚시터'로 나뉜다. 아울러 영유아들을 위한 '영유아낚시터'와 외국인을 위한 '외국인 전용 낚시터' 등 입장객의 성향에 맞는 맞춤형 낚시터도 선을 보인다. 얼음낚시터는 '물 반, 고기 반'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린다. 축제기간 싱싱한 산천어를 대량 공급해 초보자도 약간의 요령만 터득하면 파이팅 넘치는 산천어 낚시의 손맛을 즐길 수 있다. 축제장에 세워둔 100m에 이르는 초대형 얼음이성과 멋진 눈조각들은 볼거리다.

이번 축제 기간에는 화천시내는 물론 사랑방마실을 여는 마을들도 축제열기로 후끈 달아오를 예정이다. 시내에는 중국 하얼빈 빙등제 전문가들이 직접 만든 국내 최대 실내얼음조각광장과 높이 60m, 길이 70m 규모의 서화산 빙벽 포토존, 겨울밤을 빛으로 수놓는 선등거리, 화천 커피박물관이 운영된다. 또 화천생태영상센터에서는 어린이들의 인기 캐릭터인 '구름빵' 특별전이 열리며, 주말에는 차 없는 선등거리, 산천어 댄스나이트, 마술 퍼레이드, 거리공연, 프러포즈 플라자 등 다양한 이벤트와 공연이 펼쳐진다. '사랑방마실'로 불리는 마을축제에는 소박한 시골마을의 풍경과 추억이 가득한 놀이, 체험들을 즐길 기회가 마련된다.

산천어축제는 '돌려받는 재미'도 있다. 얼음낚시, 루어 낚시, 산천어 맨손잡기 체험에서는 농특산물나눔권 5000원 권이 제공되며 그 밖의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화천사랑상품권이 체험료 규모에 따라 가격대별로 제공된다. (1688-3005 / www.narafestival.com)

엘사-슈렉 등 대형 눈조각 모인 동화나라로

▶눈과 빛이 어우러진 설국 '2015 태백산눈축제'

눈이 내리면 더 즐거운 축제가 있다. 태백산 눈축제다. 초대형 눈조각과 신나는 눈썰매, 눈미끄럼틀, 화려한 조명으로 더욱 빛나는 겨울밤을 연출하는 태백산눈축제는 눈과 얼음이 만나 환상의 세계를 펼친다. 올해로 22회째. 오는 23일(금)부터 2월 1일(일)까지 열흘간 태백산도립공원과 태백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겨울이면 '눈 세상'이 되는 태백은 2015년에도 대형 눈조각의 향연과 함께 눈과 빛, 환상과 동화가 어우러진 설국(雪國)을 연출한다. 거북선, 나폴레옹, 켄타우로스, 병마용 등 다양한 거대 눈조각이 탄성을 자아낸다. 수변공원 아래광장은 '겨울왕국존'이



◇화천산천어축제장의 산천어 맨손잡이 체험

다.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가 있는 '눈의 여왕 엘사'를 비롯해 '울라프랑 순록 스벤', 월트디즈니의 히트 고전인 '미녀와 야수', 웃음을 자아내는 '슈렉과 피오나공주' 등의 대형 눈조각이 모여 내방객을 동화 나라로 안내한다.

눈썰매장도 빼놓을 수 없는 놀이 아이템이다. 오전 9시~오후 5시 운영되는 태백산눈썰매장은 영동 지역 최대의 전천후 슬로프와 어린이용 슬로프 등을 골고루 갖추고 있다. 120m 길이에, 너비 64m, 57m의 슬로프, 그리고 1500여 대의 눈썰매가 마련돼 있다. 또 창작눈썰매콘테스트, 이색눈썰매타기 대회, 썰매체험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질주 본능을 자극하는 신나는 눈미끄럼틀도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당골광장에 마련된 대형 눈미끄럼틀은 30m 이상 길게 뻗어 있어 날아가듯 미끄러지는 쾌감을 맛볼 수 있다.

단군성전 앞에 마련된 이글루카페는 연인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명소다. 이글루 안에서 따뜻한 차와 함께 이야기꽃도 피우고 추억도 쌓을 수 있다. 축제기간 펼쳐지는 '별빛페스티벌'은 태백의 밤을 반짝이는 환상의 세계로 만든다. 황지연못에서 매일 오후 6~12시 운영되는 화려한 일루미네이션과 점등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또 당골광장과 황지연못에서는 댄스공연, 전통국악공연, 오카리나공연, 난타 퍼포먼스 등 화려한 공연도 열린다.

태백산눈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태백산의 설경이다. 태백산맥의 능선과 눈을 이고 선 주목의 모습이 최고의 설경을 선사한다. 태백시청 관광문화과(033-550-2085)

미끼없는 송어 낚시로 짜릿한 손맛

▶체험형 축제의 전형 '제8회 평창송어축제'

평창송어축제는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평창의 대표적 겨울축제다. 체험형축제의 전형으로 작년 축제기간 중 55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올해로 여덟번째. 지난 12월 20일 평창군 진부면 오대천 일원에서 시작된 축제는 오는 2월 8일(일)까지 계속된다.

송어 맛이 일품인 오대천 일원에서 꽁꽁 언 얼음 위로 펄떡이는 송어를 낚아 올리는 재미와 몰입은 한겨울 추위도 눈녹듯 사라지게 한다. 평창송어축제에는 얼음낚시와 텐트낚시, 송어 맨손잡기 등 재미나게 송어를 낚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꽁꽁 언 얼음 위에서 즐기는 송어낚시는 얼음낚시터와 텐트낚시터에서 즐길 수 있다. 송어낚시에는 미끼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초보자도 쉽게 낚시법을 익힐 수 있어 누구나 짜릿한 손맛을 볼 수 있다.

'송어 맨손잡이'도 신나는 테마다. 축제의 백미 중 하나로 얼음이 동동 뜨는 커다란 수조에서 쏜살같이 달아나는 송어를 맨손으로 잡아 올리는 체험이다. 반바지를 입고 겨울 냉수에 걸어 들어가 맨손으로 직접 송어를 잡아채는 재미는 낚시와는 또 다른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직접 잡은 송어는 매표소 옆 회센터에서 바로 손질해 회나 구이 등으로 맛볼 수 있다. 더욱 푸짐한 송어를 맛보고 싶다면 인근 송어 전문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다.

송어는 연어과에 속하는 소하형 어종으로, 평균 수온 섭씨 7도에서 13도의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서만 서식한다. 평창은 우리나라 최대의 송어 양식지이며 전국에서 송어횟집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 평창송어축제에는 겨울축제답게 눈과 얼음이 함께하는 신나는 레포츠도 빼곡하다. 눈썰매를 비롯해 여러 명이 함께 즐기는 스노우래프팅, 얼음카트와 얼음 위에서 즐기는 얼음자전거 등 다양한 눈과 얼음 레포츠가 준비되어 있다. 또 스케이트, 전통썰매, 4륜오토바이, 회전그네, 유로점프, 미니바이킹 등도 즐길 수 있다. 평창송어축제위원회(033-336-4000)

하의만 입고 대관령 질주 알몸 마라톤 '눈길'

▶재미와 낭만이 눈꽃처럼 내리는 '대관령눈꽃축제'

대한민국 최고의 적설량을 자랑하는 대관령에서 신명나는 겨울축제가 열린다. 오는 9일(금)부터 1월 18일(일)까지 10일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원의 메인 행사장과 송천 일대에서 '2015 대관령눈꽃축제'가 펼쳐진다.

겨울이면 하얀 눈꽃나라로 변신하는 평창군 송천 일대에는 높이 10m 이상의 중대형 눈조각 50여 점이 펼쳐져 장관을 연출한다. 러버덕을 비롯해 파리의 개선문,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 등 세계의 상징물들이 줄줄이 등장하고 숭례문,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눈조각들도 함께 전시된다. 어둠이 찾아오는 오후 6시부터는 조명이 설치돼 더욱 환상적인 분위기가 펼쳐진다. 또 눈조각경연을 비롯해 작가 초청 눈 및 얼음조각 전시, 이글루 모양의 쉼터 체험 등 눈조각과 함께 하얀 겨울에 '색깔 있는 추억'을 수북이 담아 갈 수 있다. 겨울놀이도 풍성하다. 눈썰매를 비롯해 스노우 뱁슬레이, 얼음썰매, 얼음 미끄럼틀까지 놀이 형태도 다양하다. 스노우 래프팅, 스노우 ATV 등 새로운 겨울 레포츠들도 가득하다. 거기에 2018 동계올림픽 종목인 봅슬레이, 컬링, 스케이트, 바이애슬론 등을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동계올림픽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11일 오전 10시부터는 5km, 10km 알몸마라톤대회도 열린다. 대관령눈꽃축제장을 떠나 대관령휴게소까지 갔다가 다시 축제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평창 고원의 맑은 공기와 아름다운 겨울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이색 행사다.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하의만 입은 채 한겨울의 대관령을 힘껏 내달아 마라톤 코스를 완주하는 진풍경을 연출한다.

축제장에는 색다른 체험이 가득하다. 대관령의 명품인 황태덕장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황태덕장 포토존'과 양목장을 조성해 양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예로부터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하여 지금도 '청뚜루'라 불리는 백두대간 태백산맥의 차항리 마을에서 열리던 사냥놀이를 시연하는 '황병산 사냥놀이'도 펼쳐진다. 대관령눈꽃축제위원회(033-335-3995)

한겨레 THE HANKYOREH
2015년 01월 07일 수요일 022면 문화 26.7 x 32.3 cm

습지 보전 공들인 10년 '천학 도시' 꿈 현실로

두루미류 천마리 겨울 나는 순천만

지난달 25일 전남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흑두루미를 비롯한 두루미류 새의 개체수가 1000마리를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순천시의 이날 아침 모니터링에서 흑두루미 966마리, 재두루미 35마리, 검은목두루미 4마리 등 두루미류 3종 1005마리가 관찰된 것이다.

두루미류 새 1천마리를 품는 도시라는 의미의 이른바 '천학 도시'는 순천시가 2000년대 중반 이후 순천만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흑두루미 수를 헤아리면서 자연스레 갖게 된 목표였다. 그 목표 달성의 순간이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찾아왔다.

흑두루미를 포함해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는 두루미류 새들은 낮에는 주변 농경지 곳곳에 흩어져 먹이 활동을 하다가 해가 지면 주로 순천만 동쪽 해룡면 쪽 개펄에 모여 잠을 잔다. 따라서 천마리 학을 모두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아침에 잠자리에서 깨어나 농경지로 날아갈 때다.

새해 이튿날 아침 천마리 학을 만나러 순천시 흑두루미 모니터링팀을 따라 흑두루미 잠자리가 내려다보이는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용산 전망대에 올랐다. 두루미류 수를 세는 순천시의 공식 모니터링은 실수를 막기 위해 2인 1조 두 개팀이 동시에 진행한다.

"두 마리가 날아올랐네요." 탐조용 스코프(망원경)를 지켜보던 강나루 순천만자연생태해설사의 이야기를 듣고 시계를 보니 7시15분이다. 동이 트려면 20여분이나 남았는데도 먹이터를 찾아 날아간 걸 보면 꽤나 부지런한 녀석들이다. 하지만 탐조용 스코프로 어렴풋이 보이는 개펄 안쪽 잠자리의 나머지 흑두루미떼들은 대부분 잠에서 깨어나기 전인 듯 머리를 가슴에 파묻고 몸을 웅크린 채 꼼짝하지 않았다. 점차 밝아오는 여명에 흑두루미들 앞으로 검은 그림자가 반사돼 보였다. 이들이 서 있는 개펄이 물속에 잠긴 상태라는 이야기다.

동이 트면서부터 흑두루미들은 3~4마리의 가족 단위나 몇개 가족으로 구성된 소그룹으로 날아올라 건너편 농경지 쪽으로 날아갔다. 20여마리 가까이 한꺼번에 날아오른 경우도 있었지만, 날아가면서 한 줄로 대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개체수를 헤아리기가 어렵지 않았다.

"흑두루미 무리 크기가 지난번 모니터링했을 때보다 작은데요." 황선미 순천시청 두루미류 모니터링 담당 주무관이 말했다. 지난달 25일 관찰했을 때보다 250~300여마리 적어 보인다는 것이다. 나머지 흑두루미들은 금방 확인되지 않았다. 용산전망대에 도착할 때쯤부터 뿌리기 시작한 눈발이 점점 거세져 동이 텄는데도 시야가 좋지 않은 탓이다. 이들은 잠시 뒤 기존 잠자리에서 서쪽으로 1.5㎞가량 떨어진 장산 개펄 쪽에 세 무리로 흩어진 채 발견됐다.

장산 개펄에서 이처럼 많은 흑두루미들이 잠을 자기는 지난해 10월22일 순천만에서 이번 월동기 첫 흑두루미들이 관찰된 이후 처음이다. 강 해설사와 황 주무관은 그 이유로 전날 새벽 해맞이 관광객들이 새벽부터 새들 잠자리 근처로 접근하는 바람에 위협을 느꼈을 가능성을 꼽았다. 강 해설사는 "흑두루미는 두루미나 재두루미보다 사람들의 접근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농경지에서 고양이나 개 등에게 위협을 받으면 조금 날아올라 근처 농경지로 피하는 정도지만, 사람들이 접근하면 개펄로 다시 날아가 1시간 가까이 먹이터로 돌아오지 않곤 한다"고 말했다.

점점 거세지는 눈 때문에 장산 개펄 쪽 잠자리에서 날아오르는 흑두루미 수를 정확히 세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쉬웠지만 모니터링팀은 결국 이날 개체수 집계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순천이 '천학 도시'의 꿈을 이룬 것은 그냥 건네진 선물 같은 것이 아니다. 순천만 개펄과 주변 습지는 1990년대 중반 한때 골재채취 예정지였다.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골재채취를 막아내지 못했다면 국내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도, 연간 2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국내 최대 생태관광지도 없을 뻔했다.

골재채취 허가 취소 요구에서 시작돼 8년여 동안 이어진 시민단체의 순천만 보전 운동은 2003년 28㎢에 이르는 순천만 개펄과 갈대숲 등이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결실을 맺었다. 습지보호구역 지정 이후 순천시는 개발보다는 보전을 통한 생태관광지 조성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2008년엔 순천만으로 흘러드는 동천 양안의 농경지 100만㎡를 사들여 습지를 조성하고 개펄 인근 식당과 매점을 이전하는 등 생태 복원에 나섰다. 이듬해에는 흑두루미 등 대형 철새들의 이동에 위협이 되는 전깃줄을 없애기 위해 순천만 습지 주변 전봇대 282개를 철거하기도 했다. 농민들의 협조를 받아 흑두루미들의 주요 먹이터인 대대뜰의 논 59㏊에서는 농약을 쓰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여기서 생산되는 벼 가운데 50t은 따로 비축했다가 철새 월동기에 매일 300㎏씩 이들의 먹이로 주변 농경지에 뿌려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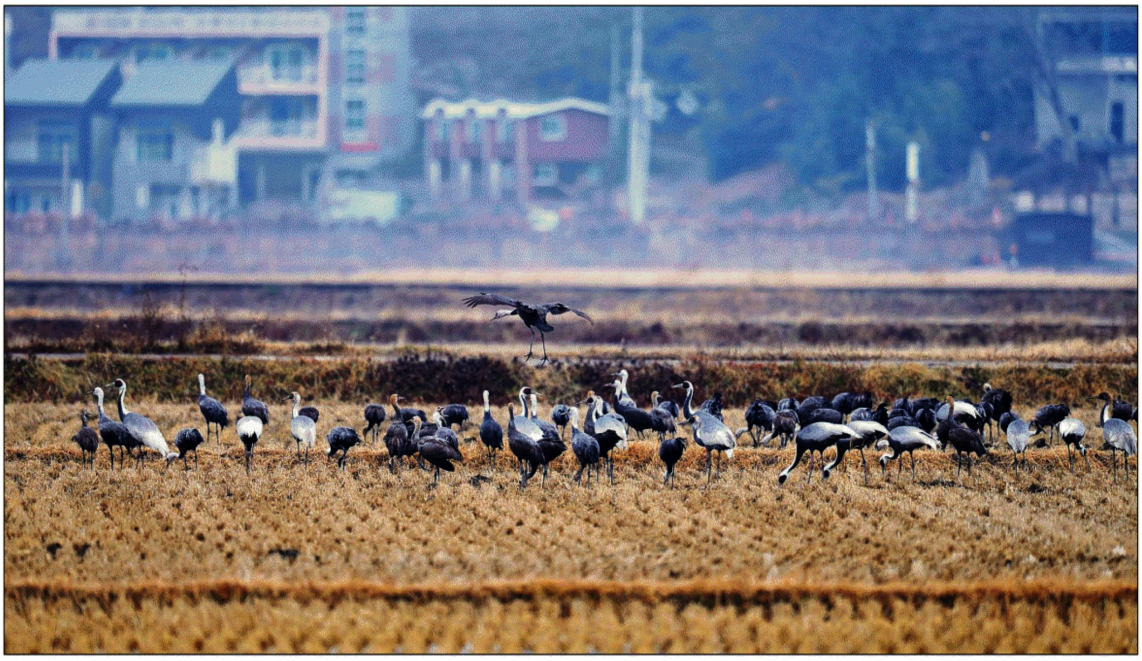
1990년대 말까지 100마리가 안 됐던 순천만의 두루미류 월동 개체수가 이번 겨울 1000마리를 넘어선 것은 순천시가 주민들과 함께 흑두루미 월동 여건을 꾸준히 개선해온 결과라는 것이 조류 전문가들의 견해다.

순천만 사람들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 낙동강을 파헤친 4대강 사업이 천학 도시 꿈 실현을 거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한국두루미네트워크 이기섭 대표는 "구미 해평습지 등 낙동강 지역을 거쳐 일본의 월동지로 이동하던 흑두루미들 상당수가 4대강 사업 이후 서해안을 경유하는 쪽으로 이동 경로를 바꾼 것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서해안을 따라 남하해 세계 최대 흑두루미 월동지인 일본 규슈현 이즈미로 가던 길에 순천만에 기착한 개체들이 순천만의 좋은 월동 여건 때문에 그대로 머무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천학 도시'의 꿈을 이룬 순천시는 2023년까지 순천만 주변에서 내륙·연안습지 70만㎡를 복원하고 400㏊의 흑두루미 쉼터를 조성해 두루미류 월동 개체를 2000마리까지 늘리는 새로운 목표를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순천만의 두루미류 수용 능력은 1000마리 정도가 한계로 보이지만 순천시의 보호 활동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순천/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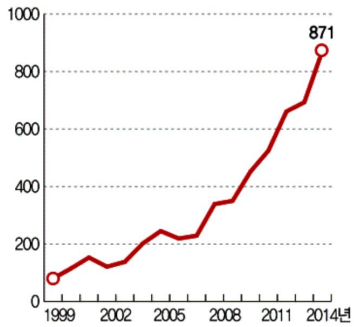


전남 남해안 순천만에서 겨울을 나고 있는 흑두루미들이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인근 대대뜰 논에 모여 먹이를 찾고 있다. 순천시 제공

민관 협력 생태계 보전 결실로
성탄선물처럼 온 천학도시 뒤엔
낙동강 훼손 4대강 사업도 한몫

새해 첫 두루미류 숫자 헤아리기
일출 관광객에 놀라 잠자리 바꿔
눈보라 탓 집계 없이 아쉽게 끝나

순천만에서 월동한 두루미류 개체수
자료: 환경부 (매년 1월 기준/단위: 마리)



경향신문

2015년 01월 07일 수요일 016면 사회
15.3 x 11.8 ㎝

제주는 '공사 중'

작년 관광개발 바람에 건축허가 346만㎡… 전년 비해 59% 급증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중산간에 위치한 '시골' 마을이지만 지난해에만 주택과 상가를 짓는 공사가 10곳 안팎이었다. 김현주씨(36·제주시)는 "신제주와 같은 도심지에는 호텔이나 상가 공사가 이어지고 농어촌에는 주택이나 커피전문점·음식점 등을 짓는 건물 공사가 끊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지난해 허가한 건축면적이 전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났다. 이주 인구가 증가하고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2014년 한 해 7950동, 346만6668㎡에 대해 건축을 허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에 비해 면적 대비 58.9% 상승한 수치다.

건축 경기를 이끈 것은 상업용과 주거용 시설이다. 상업용 시설은 전년에 비해 면적 대비 89.3% 늘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과 같은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 속도를 냈기 때문이다. 제주 이주 인구가 늘어나면서 주거용 시설도 56% 증가했다.

혁신도시와 영어교육도시가 있는 서귀포시의 지난해 건축허가 면적은 118만㎡로, 2010년(50만㎡)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제주시는 건축 경기 호황에 힘입어 재산세를 목표액 537억원보다 23억원(4.2%) 많은 560억원을 징수했다. 제주지역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골프장의 경영난으로 재산세가 20억여원 체납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축 건물과 토지매매가 상승 등이 재산세 증가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최근 5년간 제주지역 주택매매가 상승률과 지가 상승률이 전국 평균을 상회한다고 분석했다. 인구 유입과 토지거래 증가, 중국인 중심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스포츠동아

2015년 01월 07일 수요일 014면 종합 20.1 x 16.8 cm

방한 외국인 위한 '쇼핑관광축제' 한마당

9일부터 K그랜드세일 스페셜 테마위크 볼거리·즐길거리·살거리로 나누어 진행

'쇼핑도 하고, K-컬쳐도 즐기고….'

방한 외국인을 위한 쇼핑관광축제 2015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 2015)의 스페셜 테마위크가 9일부터 시작한다. 스페셜 테마위크는 쇼핑 프로모션에 공연, 테마파크, 한식체험 등 다양한 대중문화를 접목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콜라보레이션 관광 이벤트다.

스페셜 테마위크는 크게 볼거리(must-see, 9일~23일), 즐길거리(must-do, 24일~2월7일), 살거리(must-buy, 2월8일~22일) 등 세 가지 기간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볼거리 주간에는 비밥, 사춤, 드럼캣, 점프 등 넌버벌 퍼포먼스가 열리며 관광객에게 '1+1' 혜택을 제공한다. 24일부터 2주간의 즐길거리 주간에는 에버랜드, 드래곤힐스파, 케이라이브, 웅진플레이도시 등의 테마파크와 공연장에서 더블 할인 혜택 혹은 추가 경품 행사가 열린다. 특히 2월8일부터 시작하는 살거리 주간은 중국의 최대 명절인 춘절을 포함한 기간으로 많은 요우커들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 아울렛 등 대표 유통사들이 제시하는 다채로운 프로모션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한다.



'2015 코리아그랜드 세일'의 이벤트부스가 있는 명동에서 행사 브로슈어를 들고 웃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 이 이벤트부스는 9일 스페셜 테마위크가 시작되면 동대문으로 위치를 옮겨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진제공 | 한국방문위원회

스페셜 테마위크 시작에 맞춰 이벤트 부스가 서울 동대문에 오픈된다. 이벤트 부스는 2014년 12월1일 코리아그랜드세일 시작 이후 한 달 동안 서울 명동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이벤트가 열리는 무대로 인기를 모았다. 동대문으로 옮긴 이후에는 스페별 테마위크 각 주간에 맞춰 메이크업 쇼, 한식 체험 등의 다양한 한류 체험 행사가 열린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주관하는 한국방문위원회 한경아 사무국장은 "1월과 2월은 볼거리와 즐길거리, 살거리를 주제로 차별화된 혜택을 집중 제공하여 외국인관광객이 보다 풍성한 쇼핑관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2015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관광 비수기인 겨울에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관광행사다. 이번 겨울 시즌에는 2014년 12월1일부터 2월22일까지 84일간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등의 지자체와 주요 백화점과 면세점, 호텔, 대형마트, 쇼핑몰, 공연기획사 등 135개 업체 2만 8000여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kobaukid

매일경제

2015년 01월 07일 수요일 A35면 분석과전망 18.1 x 10.5 ㎝

공공기관 사옥 매각, 총리실이 나서야 한다

정부의 국토균형발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들이 속속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으나 기존 사옥 매각이 지연되면서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부채 규모가 2013년 기준 511조원에 달하는 판국에 기존 사옥을 팔지 못한 채 새 사옥으로 이전하느라 또다시 빚을 내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2010년부터 지방으로 이전한 정부 산하기관 75곳(예정 매각 금액 6조7000억원) 중 사옥을 팔고 이사한 기관은 32곳(매각 금액 1조3000억원)에 불과하다. 금액 기준 80.6%(5조4000억원)에 달하는 43곳은 팔리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파는 기관들이 '헐값 매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가격 조정보다는 유찰을 감수하는 탓이다. 사옥이 안 팔린 상태에서 그냥 이전한 기관도 17곳에 달한다. 이들 사옥은 유령 빌딩처럼 방치돼 주변 상권까지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하니 국가적 손실이 이만저만 아니다.

문제는 올해 한국관광공사 등 24곳(1조6086억원), 내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곳(4022억원) 매물이 또 쏟아진다는 점이다. 값은 더 떨어지고 매각은 더 지연되며 그로 인한 이자와 각종 비용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게 뻔하다.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용도변경 등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국토교통부 일개 과(課) 힘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섣불리 용도변경이나 임대를 허용하면 악용될 소지도 있다. 기관들이 매각가를 올려 유찰을 유도하거나 매각 지연을 이유로 이전을 미룰 공산이 크다. 결국 청와대나 국무총리실이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아 매각 작업을 총지휘해야 속도가 날 것이다. 공공기관마다 소관 부처가 다르고 용도변경, 고도제한 등 부처 간·지자체 간 협의사항도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차제에 공공기관 이전 용지를 행복주택 용지로 활용하면 어떤가. 박근혜 대통령이 14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던 행복주택은 성과가 없다. 용적률을 확 높여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마포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용보증기금 용지에 행복주택을 짓는 방안도 고려해 보라. 정부부터 창조적인 발상으로 일의 효율성과 스피드를 높일 필요가 있다.